

# 九天 上帝의 降世神話와 地上天國

高南植\*

## 目次

- I. 序論
- II. 日帝下 檀君수용과 甌山敎에서의 檀君
- III. 九天上帝 降世신화와 地上天國
- IV. 檀君신화와 이마두·진목 死後談에서 地上天國
- V. 結論

## I. 序論

신화는 고대적 생활의 소산으로서 그 역사와 생활민속의 반영이라는 관점에서 역사화, 민속화, 인류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명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한편 신화는 그것이 언어로써 문화적 결구를 이루고 있다는 면에서 그것은 문화이고, 따라서 문화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또한 중요한 것이 된다.<sup>1)</sup> 영웅의 일생을 수용해 서사화하고 있는 신화들은 한국 건국신화 - 단군, 주몽, 혁거세, 탈해, 궁예, 작제건(作帝建) 등의 이야기- 가 지닌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이 신화들은 시조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계통을 이을 정도로 열렬히 수용돼, 유사한 영웅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본다.<sup>2)</sup> 교조(敎祖)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신이한 전설은 교단에서 애쓰지 않아도 진인이나 영웅의 출현을 고대하는 전승적 유형에 따라서 저절로 생겨나 널리 퍼져나갔다. 그런 전설을 모아서 국문경전을 편찬한 것은 문화의 양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바꾸어 놓은 변혁이었다. 이렇게 해서 민중종교운동은 문화사<sup>3)</sup>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1) 玄容駿,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359면.

2) 金承鎬, 「韓國 僧傳文學의 研究」, 民族社, 1992, 256면.

자체에 깊숙히 들어와 커다란 자취를 남겼다.<sup>4)</sup>

일제하에서 증산(甌山)<sup>5)</sup>을 따르던 민중들이 보였던 신앙적 열정은 일종의 영웅과 관련된 신화와도 같은 것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단군에 대한 숭배와 함께 일조류를 이루었다. 증산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을 통해 전해지다가 이상호, 이정립 형제에 의해 『증산천사공사기』(1926)라는 일화집을 통해 발간되었으며, 3년후에 내용을 증보해 『대순전경』(1929)으로 간행되었다. 이 글은 증산의 강세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지상천국이라는 이상세계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이다.

## II. 日帝下 檀君수용과 甌山敎에서의 檀君

이 장에서는 구한말 민족의식의 고취에 단군신화가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살펴보고, 『대순전경』의 저자인 이상호 이정립 형제의 단군에 대한 신앙적 수용을 통해 시대 사상적 조류속에서 증산 관련 신화가 단군 신화의 영향 가능성을 보기로 한다.

먼저 1920, 30년대를 전후한 시기의 단군에 대한 민족의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러말·선초에 고조되던 단군숭앙 분위기는 15세기 세종 세조 대를 고비로 하여 16세기 이후엔 점차 쇠퇴하고, 그 대신 기자숭배가 조선 정신계에 고조되었다. 단군에 대한 인식을 주도해온 仙家라는 문화적 흐름에 대한 것이다. 이 선가는 환인 환웅 단군에 유래되는 신교 일선교적 고유 문화와 동이로 지칭되는 고조선으로부터 자신의 문화적 종족적 연원을 찾는 흐름을 가리킨다.

한편 유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리하여

3) 당시 문학의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개화기 문학은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보아 두 개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 전대의 조선 왕조 문학의 소멸과 근대문학의 성립이란 문학사의 과도적인 전환기를 배경으로 하여 생성한 문학이란 점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20세기초 밖으로부터 밀어닥치는 외세에 대응하여 민족 자주의 정신확립이 긴급하면서도 전근대적인 사회체제를 혁신시켜 가야만 했던 과제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의 문학이란 점이다.」(李在鎭, 개화기 소설의 문학사회학, 開花期文學論, 형설출판사, 1994.5)

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 지식산업사, 1997, 7-11면.

5) 신격위가 구천상제(九天上帝)임.

조선 후기로 오면서 서양세력과 일제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됨과 함께 단군에 대한 인식이 다시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근대기의 '단군민족주의' 현상은 여러 방면에서 관찰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자신을 '단군의 자손'으로 인식하고 단군을 민족의 공동조상으로 간주하는 의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종교방면에서는, 단군교-대종교에서 보듯이, 단군을 민족적 시조이자 종교적 신앙대상으로 상징하는 고유종교를 중심으로 민족적 부활을 도모하려는 종교운동이 일어났고, 학술방면에서는 민족적 정체성의 기점이 되는 단군과 고유문화-역사를 연구하려는 국학운동이 나타났다.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는 전장에서는 단군의 자손 모두가 단결하여 궤기할 것을 촉구하는 격문들이 속출하였으며, 민족적 부활을 염원하는 숭한 기원문들이 단군에게 바쳐졌다. 중국의 연호나 조선황실의 년호를 대신하여 단군을 기점으로 삼는 단기가 년호로 사용되었으며, 단군전설에 관련된 사적지를 보호하자는 운동도 일어났다. 삼일운동 역시 한말 이래 대중화한 '단군민족주의적' 민족의식이 폭발했던 사건으로 의미를 가진다. 위정척사파들도 시간이 가면서 조선의 연원을 칭함에 있어 점차 단군을 중시하여 기자와 함께 단군을 병칭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골수 위정척사파였던 이항로에게서 보듯이 단군에게 독립전쟁에 대한 원호를 염원하는 제사를 올리기까지 하게 되었다.

박은식은 '우주간에 있어 정확은 주자학 하나 뿐' 이라 믿고 자신을 정통 주자학도라 자처하였었다. 그러나 박은식의 이러한 종교관은 그가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고 특히 대종교를 접하면서 크게 전환함을 본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종교를 시조 단군이 시작한 신교라 간주하고, 이 고유 신교를 계승한 대종교를 국교로 정립하려 하기까지 하였다. 근대기 '단군민족주의' 운동의 대표적 주 흐름을 학문적 차원에서의 민족사학과 종교차원에서의 대종교로 꼽기도 하지만, 한말 이후의 민족사학은 민족과 그 역사의 시원으로의 단군의 모습을 재발굴하고 그 민족사적 의미를 구체화시키는데 중요한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선도한 인물이 바로 단재 신채호였다. 단재에게 있어 단군은 민족적 정체를 확인하는데 있어 그 기점이 되는 존재였다. 단재에게

있어 단군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재했던 존재였다. 신채호와 함께 근대 민족주의사학을 창시한 인물로 꼽히는 박은식은 고대사쪽 보다는 민족이 일제의 침략에 의해 고통받고 독립을 위해 싸우는 근대사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그 역시 국사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단군으로부터 시작하였다.

1920년대에 육당 최담선에 의해 집필된 여러 저작들은 조선 정신을 발굴하여 민족의식을 북돋우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단군에 대하여는 어느 국학자보다 풍성한 업적을 남기었다. 단군을 조선인의 사회적 통일 원리이자 정신적 지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단군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기도에 저항하였다. 단군은 한족을 비롯한 주변민족들을 우월한 문화적·군사적 힘에 의해 복속시키면서 동북아 일원에 일대제국을 건설하였던 민족영웅으로 묘사되며,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은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었음이 강조되고 있다.

1920년대 민족종교의 활동에 있어 대종교는 일제기를 통하여 '단군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한 주역이었다. 각지의 대종교 교당과 부설학교들에서 행해진 포교활동은 그 자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조국광복의 의지를 다지는 독립운동이었다. 대종교 교단은 민족주의적 지사들이 독립운동의 모색하는 중심체였으며, 청산리대첩에서 보듯이 실제로 무장투쟁의 선두에 서서 일제의 결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일제기를 통하여 대종교의 포교활동은 바로 항일독립운동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 또한 대종교를 '종교를 가장한 항일단체'로 간주하여 불법화하고 그 포교활동을 탄압하였다.<sup>6)</sup>

19세기말에 들어오자 단군사상은 일제 침략에 맞서는 민족사상으로 정립되었다. 나철을 중심으로 대종교가 창시되었고 단군사상을 민족이념 또는 자주사상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나철이 구월산에 들어가 순국한 뒤 대종교는 본부를 단군이 건국한 만주로 옮겨 본격적으로 항일 투쟁에 나섰다. 그후 상해로 진출하여 임시정부의 터전을 닦고 청산리 전투등 무력을 통한 항일전을 폈는가하면 박은식 신채호 같은 사학자들에 의해 민족자주사

6)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 요약한 것이다. 정영훈, 「단군과 근대한국민족운동」, 『한국의 정치와 경제』 8집, 정신문화연구원, 1995; 정영훈, 「단군의 민족주의적 의미」,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상으로 이론화되었다. 국내에서는 동학이나 증산교 같은 신흥종교에 세계의 중심지가 우리나라가 된다는 주역과 함께 후천개벽설의 이론적 뒷받침이 되기도 했고, 계룡산을 중심으로 단군을 받드는 교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단군사상 또는 단군신앙을 말살하기에 혈안이 되었다.<sup>7)</sup>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중엽까지의 일세기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종교가 자생적으로 많이 발흥한 때이다. 국가의 명운, 민족과 민중의 운명이 압담할 뿐이었던 때가 19세기였다. 증산 등의 종교사상은 위기의 극복을 다 같이 염원하던 공통적인 시대감각 속에서 이룩된 것이다. 19세기 중기에 발흥하여 현재까지 교단을 크게 형성한 종교사상가중 어느 누구도 증산처럼 민중을 구제하기위해 지상에 하강한 천주임을 스스로 자처한 사람은 없었다. 이 사실은 그 만큼 증산의 종교적 신념이 대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의 의지에서 개혁을 말하되 공사로서 파악하여 천지공사(天地公事)로 역설한 것은 그의 개혁의지의 헌신적 적극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시 구세제민(救世濟民)의 의지로 새롭게 나타난 일련의 종교사상가중에서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sup>8)</sup> 증산사상의 뿌리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 환인 환웅 단군(桓仁 桓雄 桓儉)으로 일컬어지는 삼신제왕(三神帝王), 삼신제석(三神帝釋), 삼신왕(三神王)이다. 삼신은 일체일위라는 전통사상과도 같다.<sup>9)</sup>

『대순전경(大巡典經)』을 간행한 이상호 이정립 형제<sup>10)</sup>도 단군에 대한 신앙을 증산 신앙안에 수용해 그들의 교리를 체계화시켰으며 이러한 성향은 증산 관련 신화적 기록에도 일련의 영향을 끼쳤다.

종도 김병선과 부자지의(父子之義)를 맺었던 김현술의 구술에 의하면 김병선은 치성을 올릴 때에 천장에 길이 석자가 넘는 백지에 강성 대제라 써서 머리가 동쪽으로 가게 하고 끝이 서쪽이 되게 붙이고 그 왼 편벽에는 환

7) 李離和, 「단군에 대한 이해와 오해」, 『천부사상과 환단역사』, 동신출판사, 1989, 218.

8) 尹絲淳, 한국사상사 시각에서 본 증산사상, 증산도사상연구, 대원출판사, 1984, 311-312면.

9) 국민윤리학회 편, 韓國의 전통사상, 형설출판사, 1983, 203면.

10) 이들의 역사 인식과 강증산과 관련된 신앙 활동은 현 증산교 중심 경전인 『대순전경』의 편찬에 일련의 영향을 끼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인 천제 환웅천왕 단군왕검 삼위 위패를 아래로 써붙였다. 이정립은 민족적 종교운동에서 말하기를 「이 시대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신 대성의 말씀은 삼국통일 이후 천수백년 동안 우리가 우리 민족의 시조 환인 천제 환웅천왕 단군왕검 삼위를 배반하고 외국 사람의 조상을 우리 민족의 선령신으로 잘못 섬겨 온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대성(강증산)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실 때에 종도 김광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은 살길과 죽음 길을 결정하는 것이니 잘 생각하여 말하라 광찬이 여쭙어 아뢰되 선령신을 부인하거나 박대하는 자는 살 기운을 받기 어려울것이다. 대성께서 한참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하셨다. 위 말씀을 연구해보아도 우리들은 씨족 선령신의 경배와 함께 씨족시조의 선령신의 민족시조에 대한 숭봉이 대성의 종교사상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성께서 갑진년 5월에 밤 재에 계실 때 종도 김갑철이 구릿골로부터 이르거늘 대성께서 물으시기를 너의 지방에 농항이 어떠한뇨 갑철이 아뢰기를 가름이 심하여 이종을 못하므로 민심이 소동되나이다 대성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비를 빌러 왔도다 네게 우사를 붙이노니 곧 돌아가되 길에서 비를 만날지라도 피하지 말라 이는 네몸에 천지공사를 뛰고 가는 연고니라 갑철이 명을 받고 돌아 갈 때 얼마 아니 가서 비가 시작하여 잠시에 냇물이 넘치는지라 이로부터 물이 풍족하여 수일 동안에 모심기를 마치니라 위의 대성의 말씀가운데 네게 우사를 붙이노라 하신 우사는 환웅천왕께서 하늘나라에서 풍백 우사 운사등 신병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신시를 열고 인간 360가지 일을 주관하여 다스렸다는 신화의 우사와 같은 어사이다.

대성께서 하늘 신계의 모든 신명들이 구천에 모여 들어 당신이 아니면 이 어지러운 말대의 천지를 바로 잡을수 없아오니 굵어 살피소서 하는 신망에 응하여 이 동방에 강세하사 신문을 열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을 천지공사를 행하신 것은 환웅천왕께서 신병 삼천을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신시를 열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신 신정의 원리를 재현하여 치세의 원리

로 쓰신 것이라 하겠다. 대성의 종교사상은 신교의 사상을 중광한 종교사상임을 위에서 거듭 거듭 밝혔거니와 여기서는 대성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의 공행법리가 신교의 사상을 본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정립은 그의 저서 민족적 종교운동의 교의체계에서 말하기를 상고에 하느님이 아드님 환웅천왕에게 천부와 인 삼 개로써 민족이 생존할 이념인 홍익인간과 세상을 경영할 큰 권한인 재세이화의 두가지 큰 이념을 주셨음에 천왕께서 신시에 터를 정하신 것과 단조께서 조선국을 건설하신 것이 모두 이 두가지 큰 이념의 들쳐냄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부족의 확산과 문화의 계발에 따라 이 이념이 점차 분화 발달하여 홍익인간은 그 소극적인 한 면이 신교와 무도로 분화 발달하여 푸념 푸닥거리의 행사로 인간과 신명의 융합을 도모하며 그 적극적인 한면은 북마지 하늘부비 하늘춤 계갈이 동생모이 버들쏘기 풍류 화랑 등 각종 인도형식으로 분화 발달하여 보본추원 도의상마 공려재덕의 협동훈련을 행하였고 재세이화는 국가로서는 인정의 치도와 인민으로서는 의협무용의 정신으로 분화발달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육양계의 조화발달로써 이루어진 순풍양속과 선정미덕의 협동질서는 항상 인접한 다른 민족들의 부러워 하는바가 되었다.

대성께서 국가와 민족이 멸망하여 가는 시대에 탄강하사 민족이 갱생할 운수 기틀을 굴러 열으시고 부흥번영의 길을 밝혀 홍익이화의 발전적 종합 개념인 증계적 계시로 천지공사의 사상체계를 세우사 하느님이 주신 시원 이념에 다시 돌아가며 전일진화이념을 포섭하여 순화할 전진거점을 정했다고 하였다. 이정립은 신도들의 신앙지침서로 저술한 증산교요령이라는 교서에서 아래와 같은 삼단교의 체계도를 기재하여 대성의 종교사상이 단군왕검 시대의 신교를 중광한 사상임을 분명히 하였다.<sup>11)</sup>

일제하 단군신화를 통한 민족혼의 선양은 고려시대 이규보가 고래로부터 전해지던 주몽에 대한 이야기를 동명왕(東明王)편으로 창작해 민족정기를 고취시키려던 사실과 배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일제의 지배하에 단군에 대한 신앙 단체인 대종교등이 출현하고 타 민족종단에서도 교리체계하에 단군을 국조로 신앙화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단군숭배 풍

11) 洪凡草, 「甌山教 概說」, 創文閣, 1982, 114-119면의 내용을 요약 한 것이다.

조가 증산을 믿는 단체에서도 신앙적으로 있게 되었으며, 『증산천사공사기』를 지은 이상호 이정립 형제가 만든 종파에서도 단군신앙은 교리체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요컨대 구전(口傳)으로 전해지던 증산에 대한 이야기를 문헌으로 기록함에 있어 단군신화의 영향이 작용했음을 찾게 된다.

### Ⅲ. 九天上帝 降世신화와 地上天國

신화는 설화의 부속어로 쓰이기도하며 전설, 민담 등과 같이 세분화시켜 사용할 때, 또 다른 개념의 분화를 낳는다. 가령 1. 신에 관한 이야기 2.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과 질서를 설명하는 이야기 3. 신성시 되는 이야기 등은 후자의 테두리에서 나온 정의들이다. 이 중에서 한국신화와 결부시켜 설득력있게 수용될수 있는 개념은 3이다.<sup>12)</sup> 한국의 고대신화는 단군, 해모수, 해부루, 주몽, 혁거세, 탈해, 김알지, 수로왕, 삼을나 등의 이야기가 건국 왕권신화로서 문헌에 정착되어 있다. 신화연구의 진전은 이들 신화들이 모두 같은 유형이 아님에 착안하게 되었다. 신들의 출현 형식을 보더라도 (1) 하늘로부터의 강림 (2) 바다 건너 먼 나라로부터의 표착 (3) 땅속에서의 용출 (4) 난생 (5) 일광감정(日光感精) (6) 동물로부터의 변신등이 그것이다. 단군신화는 1, 6으로, 해모수 신화는 1로, 주몽신화는 5, 4로, 혁거세 신화는 1, 4로, 수로 신화는 1, 4, 2로, 탈해 신화는 2, 4로, 삼을나 신화는 3, 2로 각각 이루어져 있다. 한국 이를볼 때 고대 신화의 형성이 북방문화 단일계의 것이라고 만은 할 수 없다.<sup>13)</sup> 이처럼 신화에서 「(1)하늘로부터 강림」한 예는 다수 나타나고 있다. 신화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한 신은 그 목적이 인간 세계에 대한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를 더 승화시킨 상태인 이상세계의 건설을 나름대로 인간계에 소망하고 있음을 환웅의 경우 등에서 볼 수 있다. 선천(先天)의 세계를 개벽(開闢)해서 후천(後天)의 지상선경(地上仙境)을 건설하겠다는 증산의 강세(降世)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12) 張德順 외 3인 공저,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29-31면.

13) 玄容駿, 앞의 책, 313-314.면.



것이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베풀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 火, 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地上仙境)으로 화하리라.(예시 80, 81절)

이러한 천상신의 지상 강림은 천상적 질서 속에 그 신적 존재가 갖고 있는 권능을 발현(發顯)하여 인간 세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상의 세계를 구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상으로부터 증산 탄강-증산에 의한 인류구원(천지공사)-증산의 승천으로 이어지는 교리체계는 한국재래의 무속신화와 건국신화에서도 두루 나타난다. 무속신화에서 지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천상의 신이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과업을 마치고 다시 천상으로 되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는, 제주도의 초감제 무가(巫歌)가 있다. 초감제 무가에서 천지왕(天地王)의 하강은 해와 달이 각각 들썩이어서 우주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 지상의 인간들이 살수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인간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어지러운 혼돈을 바로잡을 기틀이 되는 쌍둥이 형제를 잉태시키고 천지왕은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들의 고통이 천상의 신에 의해 해소되고, 천상 신의 하강은 지상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sup>14)</sup>

해와 달이 모두 두 개씩이라 낮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 사람들이 타서 죽고, 밤에는 달빛이 너무 강해 사람들이 얼어 죽어 사람들은 도저히 살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천지왕이 이 세상에 강림하여 바지왕과 배필을 맺어 살고 있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갔는데 대별왕 소별왕은 천지왕의 명령에 따라 인간 세상으로 다시 내려 왔다. 그러고서 대별왕은 뒤에 오는 해를 쏘아서 동해에 돌아 오르는 셋별 등의 별들을 만들었고

14) 金泰坤, 「증산도와 민족종교의 맥」, 「증산도사상연구 제 3집」, 대원출판사, 1994, 292면.

소별왕은 뒤에서 오는 달을 쏘아서 서해에 떠오르는 용성 등의 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는 해도 하나 달도 하나가 되고 이십 팔수의 별자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 수인씨 태호씨 복희씨 등의 성인들이 나와 인간 세상의 문물제도를 마련하여 살 수 있게 해 주었다. 이후로 인간들의 세상이 번성해져 나라와 고을 마을로 갈리어 잘 살게 되었다.<sup>15)</sup>

한국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은 초월적 초자연적 능력을 현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사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위대한 승리를 획득하지만 고난과 좌절을 통해 범상한 인간의 역정을 그리기도 한다. 신의 이야기만으로 한정시킬 수 없다는 견해는 이러한 점에서 타당하다.<sup>16)</sup> 19세기 한국민중은 동화에 희망을 걸고 난국을 극복하였다. 그러나 동화혁명운동이 실패하자 민중의 실망은 컸고 방황과 좌절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민중은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고, 따라서 증산의 강림이 소외된 민중을 구원하고 제세의 신념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하였다. 증산사상은 외래족의 침략적 위협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강한 도전에 대처하려는 사상적 인식체계로 주체성이 강하게 깃들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이 1900년대 민족의 역사가 외침하에 위협을 당할 때 민중을 구원하는 신념과 용기를 준 저력이 되었다고 본다. 증산은 항상 소외되고 억눌린 계층을 구원하려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상에는 하층민의 구국의식이 그대로 깃들어 있었고 억울함을 대변하려는 일제하 한국 현대사에서 탄압받는 민중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 선민의식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의 사상체계에는 한민족 현대사 발전중 민중구원의 메시아적 구도의 정신이 병존해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따라서 이 사상에는 유교주의적 인식체계를 배제하고 민중의 기반을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저력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sup>17)</sup> 위와 같은 상황은 증산의 탄생에 대한 신화적 내용을 『증산천사공사기(甌山天師公事記)』(1926)를 거쳐 『대순전경(大巡典經)』(1929)을 통해 다음과 같이 창작하게 되었다.<sup>18)</sup>

15) 金泰坤,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96, 208-209면.

16) 金承鎬, 앞의 책, 249면..

17) 李炫熙, 「증산도 출현의 역사적 배경」, 「증산도사상연구」 대원출판사, 1994, 254면.

18) 이하 「전경」의 예문을 인용함.

<1>

(가)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나)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

(다) 천하를 大巡하다가 이 東土에 그쳐 母岳山 金山寺 三層展 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年을 지내다가

(라) 최 제우에게 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마)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神敎를 거두고

(바) 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전경』, 교운 1장 9절)<sup>19)</sup>

위의 구절은 앞에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과 신계 이야기를 전반부에 담고 있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끝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또한 인용문<1>과 유사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지구상 많은 나라중에 조선에 자신이 강림한 연고를 담고 있다.

<2>

(사) 나는 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19) 이하 『전경』의 인용은 편과 절로 표시함.

(아)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자)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차)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카) 弓乙歌에 朝鮮 江山 名山이라. 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타) 동학 신자간에 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代先生이로다"(권지 1장 11절))

위 <2>의 증산 강세 관련 신화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1. 구천에 신성불 보살이 하소연하다.
2.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삼계를 둘러보다
3. 천하를 대순하다.
4. 동토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30년간 머물다.
5. 최제우에게 천명과 신교를 주다.
6. 천명 신교를 거두고 세상에 내리기로 하다.
7. 조선 강세의 이유를 밝히다.

위에 나온 예문들과 다음의 증산 강세(降世) 및 화천(化天) 관련 신화와 종합해서 볼 때 증산에 대한 일대기를 이루게 된다.

모친은 권(權)씨이며 성함은 양덕(良德)이니 이평면 서산리에 근친가서 계시던 어느날 꿈에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이가 몸을 덮으면서 천지가 밝아지는도다. 그 뒤에 태기가 있더니 열 석달만에 상제(上帝)께서 탄강 하셨도다. 상제께서 탄강하실 때에, 유달리 밝아지는 산실(産室)에 하늘로부터 두 선녀가 내려와서 아기 상제를 모시니 방안은 이상한 향기로 가득 차고 밝은 기운이 온 집을 둘러싸고 하늘에 뻗어 있었다.(행록 1장 9,10절) 상제께서 대순하시다가 선망리의 한 여인이 근친하러 갔을 때 그 여인의 몸을 하늘의 불 덩어리로 덮고 이상한 향기와 밝은 기운이 가득히 찬 방에서 신미년 구월 십구일에 광구천하하기

위해 강세하실 것이 예시되었느니라.(예시 2절)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 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서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 석자의 몸으로 오리라.(행록 5장 25절)

증산에 대한 일대기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구천의 상제 - 신성불 보살이 하소연-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하강- 천하를 대순- 동토에 그침 - 금산사 미륵에 30년간 머물다 - 최제우에게 천명과 신교를 주다 -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직접강세 - 태몽 - 13달만에 객망리에 탄강 - 각종 이적으로 천지공사 - 화천, 훗날 출세를 예언하다.

건국신화중에서 위의 증산 강세신화와 같이 천상의 신이 지상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강하는 예는 단군신화, 가락국기, 혁거세신화, 주몽신화등에도 있다. 건국신화에서 천제 환인의 서자 환웅이 지상에 내려온 것은 지상에 사는 인간세상의 질서를 잡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인간구원이다. 주몽신화에서도 건국주인 주몽이 천상에서 내려와 고구려를 건국한다. 혁거세 신화에서도 천상으로부터 건국주인 혁거세가 내려와 신라를 건국하며 가락국기에서도 군왕이 없는 채 질서없이 살아가는 지상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상에서 신이 내려와 가락국을 건국한다.<sup>20)</sup> 이러한 관련성 하에서 증산 강세 신화의 전체적인 의미와 주요 용어들을 통해 지상천국 건설의 내포된 상징성을 찾아보기로 한다.

### 1. 신계 이야기가 증산의 위상을 뚜렷이 하고 상징물과 관련돼 신비감과 현실성을 준다.(예문<1>의 가,나)

(가)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나)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

인간 세상의 도의 근본인 유불선(儒佛仙)을 대표하는 신성 불 보살들이

20) 金泰坤, 「증산도와 민족종교의 맥」 「증산도사상연구 제3집」, 대원출판사, 1994, 294-296면.

신계에서 증산에게 하소연했다는 부분에서 신계 증산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구천의 상제에게 신성불 보살들이 하소연 한 것은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천하에 뜻을 둔 것과 연결된다. 여기에서 신적 존재로서의 증산과 환웅이 대비되며 신적 존재인 신성 불 보살이 역시 구천에 있는 상제인 신적 존재에게 하소연해서 강세했다는 것이 신적 존재인 환웅이 스스로 뜻을 두어 후에 환인의 허락으로 강세하였다는 면과 다르다.

또한 천계탑(天啓塔)에서 천계는 하늘이 열린다는 뜻으로, 천계탑은 신계와 인간세상을 연결하는 곳이며 탑이라는 성스러운 불교적 상징물을 매개로 신적 존재가 인간 세상과 연관성을 맺는다는 현실성과 함께 성과 속의 연결이라는 신비감을 준다. 민중종교의 교조를 주인공으로 한 인물전설은 설화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선도하는 구실을 하는데, 기본 유형은 민중적 영웅의 일생에 따라 짜여지며, 득도를 해서 세상을 구하려고 나서 수난을 겪기도 했다는 내용은 새로운 시기의 역사의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sup>21)</sup> 증산의 탄강과 승천, 교조가 행한 이적등에 불가능한 신비적 요소가 있어서, 종교권밖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있을 수 있다. 종교의 신비성은 불교 도교 기독교를 위시한 세계종교일반에서 두루 나타나는 종교적 현상인데다 한민족의 국조신화인 단군(檀君)신화를 비롯한 건국신화 일반에서도 두루 나타나는 역사(歷史)와도 상관된 것이기 때문에 신비성에 대한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조명문제에 앞서, 인간이 왜 종교를 믿으며 그와같은 신비성을 수용하게 되었나하는 근원적인 인간의 심성(心性)이 문제된다.<sup>22)</sup>

2.. 신계에서 인계로 내려오는 하강 모티프를 갖고 있으면서 수직적 하강과 수평적 이동이 라는 복합성을 내포한다.(예문<1>의 나,다)

(나)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  
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

(다) 천하를 大巡하다가 이 東土에 그쳐 母岳山 金山寺 三層展 彌勒金佛

21) 조동일, 앞의 책, 70면.

22) 金泰坤, 「증산도와 민족종교의 맥」, 「증산도사상연구」, 대원출판사, 1994, 293면.

에 이르러 三十年을 지내다가

수직적 하강은 신계에서 신계의 상징물로의 하강이며 이것은 하늘의 절대적 위치에서 속의 세계와 이어지는 천계로의 이동이다. 절대적 하늘과 인간적 하늘이 만나는 순간이다.

여기에서 다시 서에서 동으로의 수평적 이동은 동양으로의 회귀를 뜻한다. 서양중심의 세계가 바뀌어져 동양을 중심으로하는 문명의 태동이 동토 조선에서 열리게 되는 민족적 자부심을 준다. 구천에 있던 신적 존재가 조선으로 내려오고 조선에서 우주를 구제한다는 민족적 자긍과 자부를 온 천하에 선포하는 단군 이래 없었던 한민족의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서자 환웅이 신단수에 내려와 홍익인간 재세이화했다는 이야기보다 한차원 높은 존재의 강세이며, 우주적 차원의 진리가 천하에 선포될 암시를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인계관련 내용은 관련물이 갖고 있는 상징적 요소와 결합돼 인계에 등장할 주인공의 역할을 암시한다.(예문<1>의 다)

(다) 천하를 大巡하다가 이 東土에 그쳐 母岳山 金山寺 三層展 彌勒金佛  
에 이르러 三十年을 지내다가

구천의 상제는 조선의 금산사 미륵금불에 머물러 신계 긴 여행을 마무리하고 인간 구제의 메시지를 전하며, 신라 진표 율사가 미륵의 계시로 열어 놓은 미륵세계의 꿈을 민중들의 가슴에 일으키게 한다. 인계의 관련물들은 구원과 희망의 지상천국의 유토피아를 열어주는 존재임을 인간들에게 암시한다.

### 4. 신은 특정한 인간을 통해 먼저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예문<1>의 라)

(라) 최 제우에게 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미륵불에 머문 신의 뜻은 최제우라는 인물을 택해 조선에 제일 먼저 전

해진다. 서구 열강의 침탈과 종교의 타락, 관의 부패하에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고 봉건잔재를 말소하여 천국의 세계를 구현하는 새 시작을 해뜨는 동방에서 먼저 최제우가 전한 동학(東學)으로 일으킨다는 이야기이다.

증산은 동학의 발생 자체가 자신의 계시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증산은 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준 상제 또는 한울님으로 믿어진다. 증산교의 이러한 믿음은 한국종교사에서 또 다른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선계의 절대적 권능을 지닌 최고 주재자가 인간 세상에 직접 강림했다는 증산의 주장은 이전의 한국종교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지상의 인간에게 계시를 내려 주었으나 그가 맡은 바 신명을 다하지 못하자 이제 직접 인간의 몸을 빌어 이상에 태어났다는 증산교의 믿음은 세계종교사에서도 독특하게 평가받아야 할 정도이다. 물론 증산의 이러한 주장은 시대적으로 앞선 동학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증산은 수운의 죽음과 자신의 출생 사이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동학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강림했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5. 천명과 신교를 인간에게 내렸으나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고 기존 세계의 힘은 절대적 가치를 인간의 차원에서 세울 수 없게 하였다. (예문<1>의 마)**

(마)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神教를 거두고

단군이 환웅의 홍익인간의 이념만을 전하고 산신이 되었다는 미완의 이야기가 수운의 모습으로 투영되어 완성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비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선택된 인간적 존재가 신이 이루고자하는 뜻을 다하지 못하자 구천 상제는 인간으로 직접 태어나 절대적 진리를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

**6. 상징적 미륵이 현실로 구현될 사상이 해원임을 밝힌다.(예문<2>의**

23) 金鐸,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정문연 박사논문, 1995, 175면.



자)

(자)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천하를 두루 대순하다가 인간 세상의 많은 국가중에서 조선을 택한 것은 국가적 한을 풀어준다는 뜻이다. 이것은 해원의 의미를 신화적 내용에 담고 있다. 해원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아 신이 이를 이상세계의 미래상임을 앞서 암시하고 있다.

#### 7. 미완의 동화를 완성하는 존재로서의 代先生임을 알린다.(예문<2>의 차,카,타)

(차)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카) 弓乙歌에 朝鮮 江山 名山이라. 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타) 동학 신자간에 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代先生이로다”(권지 1장 11절))

이상세계의 상징인 미륵불의 사상을 현실화시킨 것이 동학의 완성임을 밝히고 신이 조선에 머문 것과 미륵불에 임한 것 그리고 미완의 동화를 완성하는 참동학의 실현이 서로 같은 의미를 형성하며 신적 존재의 강세 목적이 나타난다. 이것은 단군 신화에서 환웅의 흥익인간 재세이화의 포부와 통하는 면이 있다.

## IV. 檀君신화와 이마득·진묵 死後談과 地上天國

이장에서는 이상세계 건설에 있어 단군신화와의 비교 고찰과 함께 이마득(마테오 리치)와 진묵의 사후 신화적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지상 천국 건설의 면을 보기로 한다. 먼저 단군신화를 살펴보고 증산 강세 신화와의 상호

연관성을 대체적으로 찾고자 한다.

위서에 이렇게 써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었는데, 그는 아사달(경에는 무염산 또는, 백악이라고도 하는데, 백주에 있었다. 혹은 개성 동쪽에 있다고도 하는데, 지금의 백악궁이 바로 이것이다)에 도움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기였다. 고기에는 이렇게 써어 있다. 옛날에 환인(제석을 말함)의 작은 아들 환웅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내어 구하는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아차리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에 환인은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어 인간세계를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턱(곧 태백산의 지금의 묘향산)에 있는 신단수 밑으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고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한다. 그는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와서,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을 주관하고, 모든 인간의 360여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항상 환웅에게 빌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했다. 이때 환웅은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스무개를 주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변하여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받아서 먹었는데, 곰은 삼칠일간 금기를 지키었으므로 여자의 몸으로 변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사람으로 변하지 못했다. 웅녀는 혼인할 사람이 없으므로 매일 단수 밑에서 아기 배기를 축원하였다. 이에 환웅이 거짓 변하여 그녀와 혼인했더니, 바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기의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 단군왕검은 당나라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인 경인년(요임금 즉위 원년은 무진년이다. 그러니, 50년은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의심스럽다)에 평양성(지금의 서경)에 도읍하여, 처음으로 조선이라고 불렀다. 또, 도움을 백악산 아사달이라고도 한다. 그는 여기에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 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이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기었다가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1908세였다고 한다.<삼국유사 권1 고조선> 24)

이상에서 증산 강세관련 신화와 단군신화의 관련성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나타나는 지상 선경의 내용을 찾아보기로 한다.

### 1. 천상의 신이 지상에 내려온다.

24) 金泰坤,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96, 31-33면.

천신 하강 신화가 단군 신화이고 이러한 모티프는 증산의 신화에도 나타난다. 차이가 있다면 환웅의 경우는 세상에 내려가고자 하는 뜻을 자의적으로 갖고 있었으며 증산의 경우는 신성 불 보살들이 혼란한 천지를 구해달라는 하소연을 듣고 하강의 뜻을 세웠다는 점이다. 환인의 환웅 강세 허락은 「상제께서 어느날 종도들에게 “내가 이 공사를 맡고자 함이 아니니라. 천지신명이 모여 상제가 아니면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 하므로 괴롭기 한량 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공사 1절 9절) 라는 증산의 하강이 유불선의 대표적 존재(신 성 불 보살)들의 절대적 청원에 의한 자의적 하강과는 다른 것으로 여기에는 환인의 흥익인간의 의지가 환웅을 통해 대행되었다는 점도 나타난다.

#### 2. 천상 신의 인세 하강 목적이 인간세상의 구원에 있다.

환웅은 흥익인간 재세이화(在世理化)의 뜻을 두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탐내어 구해 하강했다면, 증산은 혼란에 빠진 천지를 구제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면에서 서로 통한다.

#### 3. 천상 신이 소망을 이루어 주려는 점에서 관계가 있다.

환웅이 인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꿈과 호랑이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위해 시련을 주는 것은 인간 최제우가 민중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망과 연결된다. 물론 동물이 인간이 되는 것과 인간이 세상을 구하고자하는 소망은 다르나 소망을 이루게 하려는 화소는 같다. 한편 동물이 인간으로 화해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단군을 낳아서 인간 세상을 환웅의 뜻에 맞게 한다는 점에서 구제의 소망과 통할 수 있다.

#### 4. 신계와 인계의 이중 구조로 되어있다.

신의 이야기가 신의 이동을 따라 구체적 상징물들과 함께 인계 미륵관련 설화와 연계되며 전개된다.

이상의 크게 네 가지 점에서 단군신화와 증산신화의 연관성을 볼 수 있

다. 이제 증산의 강세가 지상에 이상세계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해 수반된 과거사 속의 인물들에 대한 회고와 초혼(招魂) 및 해원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면을 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 천국의 문명과 인간세계의 문명과의 상호간 연계성을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지상천국 건설에 있어 문명은 천국의 것을 전수 답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날 경석에게 가라사대 “전에 내가 나의 말을 좃았으나 오늘은 내가 너의 말을 좃아서 공사를 처결하게 될 것인 바 묻는 대로 잘 생각하여 대답하라.” 이르시고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나 견어야 옳으나”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의가 될까 하나이다.”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상제께서 여러가지를 물으신 다음 공사로 결정하셨도다.(공사 1장 35절)

위에서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의 기기(利器)가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임을 볼 수 있다. 지상에 존재하는 기계 문명이 천국 문명의 일부라는 것은 지상 문명의 본원이 천국에서 유래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천국 문명이 지상에 있게 된 것은 지상에 천국을 이루는 하나의 모델로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또 종도와의 대화를 통해 공사를 처결하며 창생의 편의를 위해 그대로 둔다는 것을 옳다고 한 것은 향후 천국의 문명이 계속적으로 지상에 내려와 존재하게 됨을 보인 것으로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해 기계 문명의 발달이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후천 문명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는 현존하는 문명들에 대해서도 그 핵심이 되는 것들을 취해 선택해 향후 문명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주장에서 나타난다.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 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 (교법 3장 23절)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는 천국의 문명과 관련된 것이며 각 민족의 문화적 정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지상천국건설과 그 지상천국에서의 문명의

면모와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지상천국에서의 문명적 질서가 전대의 것들을 수용해서 승화된 고도의 천국 문명을 지상에 심어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상천국에서의 문명은 신적 존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인세에 일련의 체계적인 질서를 통해 전파됨을 볼 수 있다. 이상세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마두(마테오 리치) 신부와 진묵(震墨) 대사의 사후담(死後談)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먼저 이마두의 사후담을 통해 이상세계 건설에 대한 면을 보기로 한다.

(1)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2)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끝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교운 1장 9절)

위에서 이마두가 서양에서 동양으로 온 이유는 천주교를 동양에 전해서 지상천국을 이루고자하는 의도에서였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마두가 1610년에 죽은 후의 이야기는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마두의 사후담을 위의 내용에서 접하게 된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위의 내용중 (1)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이마두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을 열었다.
2. 천상과 지하의 신명을 왕래케 했다.
3. 지하신은 천상의 묘법을 본받아 인간 세상에 베풀었다.

위의 이마두 관련 신화적 내용에서 이마두가 생시에 이루지 못한 지상천국의 꿈을 죽어서 신이 되어 이루기 위해 문명신을 통해 천상 묘법을 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세기이후 발달한 서양 문명이 위의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라는 부분과 함께 이마두 사후 신화담과 연결성을 갖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사후에 신이 되어서도 생시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일로서,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의 진묵 관련 신화적 이야기도 지상천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나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권지 2장 37절)

진묵이 김봉곡에게 참혹히 죽은 후 이마두가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간 것처럼 동양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옮겨 갔다는 사후담을 신화로서 밝히고 있다. 진묵이 자신의 상좌에게 천상에서 묘법을 배워 오고자 한 것은 인간 세계를 지상 천국화하려는 의도에서였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구천 상제가 진묵을 선경 건설에 참여하게 한다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이마두와 진묵에 대한 신화적 요소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영역에서 신이 이동을 하며 인간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천상에서 환응이 하강했다거나 구천의 상제가 강세했다는 일련의 내용들과 맥을 같이하며 새로운 신화담을 형성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신의 동서양 이동이라는 체제안에서 지상 천국의 건설이라는 명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천상제의 강세와 관련된 신화적 내용은 대순사상에서 주장하는 지상천국건설에 있어 그 출발의 시원(始原)이 되는 상징성으로 현실세계에서 행해진 천지공사(天地公事)에 앞서는 유토피아 창출의 의미를, 동학혁명(東學革命)이 실패로 돌아간 조선후기의 상황에서 건국 신화가 주어 왔던 민중의 고유한 심상(心想)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천신(天神)이 하강하여 지상에 이상세계를 건설하고자 했던 면이 구천상제와 환웅의 신화적 내용에서 찾을 수 있었다면, 이마두와 진묵의 사후담에서는 지상세계에 천상의 문명을 전하여 이상세계 건설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신이 되어서도 인간 세상에 관련을 맺고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V. 結論

구천상제인 강증산은 최존위(最尊位)인 구천의 신으로서 강세하여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천계로부터 하강하며 상징물을 통해 지상천국의 일면을 나타내었으며 인간의 육신으로 현현(顯現)하기에 앞서 신의 위치에서 인간에게 먼저 천명과 신교를 내려 지상천국의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화적 행적은 고조선 단군 신화로부터 유래하는 이상세계 건설의 의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증산은 구천 상제로서 과거사속 지상천국 건설과 관련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죽은 존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후천의 문명을 이루기 위해 마테오 리치(이마두)와 진묵(震默)등을 초혼하여 해원시켜 일련의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를 처결하였다. 여기에는 신화적 사후담이 내재되어 기록으로 나타난다.

증산 강세 신화는 고대 천상신(天上神) 하강 신화와의 관련성아래 『전경(典經)』에 나타나는 몇몇 성현적(聖賢的) 인물의 신화적 내용과 함께 동학(東學)에서 이루지 못한 지상천국(地上天國)의 대망(大望)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인류의 가슴에 전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국민윤리학회 편, 『韓國의 전통사상』, 형설출판사, 1983.
- 金承鎬, 『韓國 僧傳文學의 研究』, 民族社, 1992.
- 金 鐸, 『증산교학』, 미래향문화, 1992.
- 金 鐸,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정문연 박사논문, 1995.
- 金泰坤, 『증산도와 민족종교의 맥』, 『증산도사상연구 3집』, 대원출판사, 1994.
- 金泰坤, 『한국의 신화』, 시인사, 1996.
-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전경』, 1987.
- 李離和, 『단군에 대한 이해와 오해』, 『천부사상과 환단역사』, 동신출판사, 1989.
- 尹絲淳, 『한국사상사 시각에서 본 증산사상』, 『증산도사상연구 3집』; 대원출판사, 1984.
- 李在銑, 『개화기 소설의 문학사회학』, 『開花期文學論』, 형설출판사, 1994.
- 李炫熙, 『증산도 출현의 역사적 배경』, 『증산도사상연구』 대원출판사, 1994.
- 張德順 외 3인 공저,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71.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 지식산업사, 1997.
- 玄容駿,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洪凡草, 『甌山教 概說』, 創文閣, 1982.



< 도표 1 > 증산 강세 신화와 단군 신화의 비교

증산강세신화	단군 신화	신화의 의미
구천의 상제에게 신성불 보살 하소연	환웅 천하에 뜻을 둠	신적 존재로서 환웅 증산 대비. 신적 존재가 절대적 신적 존재 (구천상제)에게 하소연해서 강세(증산). 신적 존재(환웅)가 스스로 뜻을 두어 강세.
	환인 홍익인간위해 환웅에게 치세하게함	환인의 환웅 강세 허락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	신단수에 내려와(神市) 治世와 教化 360가지 인간사 관장	하강한 상징물의 대비
	공을 인간으로 化하게함	단군 탄생 신화(단군의 母)
	웅녀와 혼인 단군 탄생	
	단군 조선 건국(1500년)	단군의 건국
	단군 기자가 봉해지자 천도(장당경)	기자 조선과 단군 천도
	단군 산신이 됨(1908세)	단군 산신이 됨
미륵불(조선 금산사)에 임어(30년)		미륵불이 구원의 상징적 의미
최제우에게 천명과 신교		인간을 택해 구제케함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인세 탄강		인간적 존재의 불완전성으로 신적 존재의 인간으로의 탄강
천지공사(1901-190 9)로 구제		광구천하
出世의 예언과 신적 존재의 천상으로 회귀(1909)		화천과 구천상제의 出世